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단잠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단잠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단잠

완성된 이름

단잠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단잠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아주 달게 곤히 자는 잠.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미상	현재
단잠	-	-	-	-
돈잠	-	-	-	-
단중	-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아주 달게 곤히 자는 잠.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11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3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단잠'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아주 달게 곤히 자는 잠.

☞ 단잠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단잠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단잠 사전 표기 요약	—	—	—	—	●→	●→
단잠 문헌 수록 표기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돈잠 문헌 수록 표기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돈잠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단잠
19세기20세기현재
- 돈잠

20세기

• 단잠

미상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단잠, 둔잠, 단죌, 둔죌

단잠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단잠’은 19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말의 구성과 어원

‘단잠’은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는 뜻하는 형용사 ‘달-’과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단’에 명사 ‘잠’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표기 방식과 특징

19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문헌과 20세기에 나타나는 ‘단죌’, ‘둔죌’, ‘둔잠’ 등은 ‘·’와 ‘ㅏ’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것이다.

문헌 속의 단잠

전체 용례 11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단잠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단잠

출처 1848 삼설기 27장본 3:6ㄴ

용례 01

66 문헌 용례

또한 밤중에 남의 단잠을 깨워 괴롭게 하였으니.

現代어 풀이

또한 밤중에 남의 단잠을 깨워 괴롭게 하였으니.

출처 1896 국한회어 곤:68

용례 02

66 문헌 용례

단밥 먹고 단잠 자다 [甘食甘眠].

現代어 풀이

단밥을 먹고 단잠을 자다.

출처 1897 한영사전 PART I :634

용례 03

66 문헌 용례

단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단잠, 단잠 용례 5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단잠, 단잠

출처 1908 귀의성 ? :1242

용례 04

66 문헌 용례

아모 싱곡 업시 잠만 주던 춘천집도 이러누고 늦게 누어 곤하게 주던 점순이도 단잠을 억지로 깨여 이러누고.

現代어 풀이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자던 춘천집도 일어나고, 늦게 누워 곤하게 자던 점순이도 단잠을 억지로 깨워 일어나고.

출처 1908 치악산 상104

용례 05

66 문헌 용례

단잠을 깨서 이러나는 검홍이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겁이 나서 벌벌 떨고.

현대어 풀이

단잠을 깨서 일어나는 검홍이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출처 1911 치악산 하:35

용례 06

66 문헌 용례

감기 곳불만 드러도 밤에 단잠을 못 주무시고 애를 쓰시든 터인디.

현대어 풀이

감기 고열만 들어도 밤에 단잠을 못 주무시고 애를 쓰시는 터인데.

출처 1911 화세계 18

용례 07

66 문헌 용례

무엇이 급한 옷이라고 단잠을 안이 자고 바느질을 한단 말이나.

현대어 풀이

무엇이 급한 옷이라고 단잠을 안 자고 바느질을 한단 말이나?

출처 1920 동아일보 4월 30일 3면

용례 08

66 문헌 용례

디옥 꿈을 버서나서 이 세상의 단잠을 맛보려고 각각 처소로 도라가더라.

현대어 풀이

지옥 꿈을 벗어나서 이 세상의 단잠을 맛보려고 각각 처소로 돌아가더라.

미상 단잠, 둔잠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단잠, 둔잠

출처 미상 계녀가 8

용례 09

66 문헌 용례

부모님 병 들거든 단잠을 못 주나마 청령을 더욱 하여 성심껏 받주옵고.

역 현대어 풀이

부모님이 병이 들면 단잠을 못 자지만 귀기울여 들음으로 성심껏 받들고.

출처 미상 송강가사 성주본 하:76

용례 10

66 문헌 용례

돈잠 씨디 말거슬 아히 우롬 소리로다.

역 현대어 풀이

단잠을 깨지 말 것을, (그것은) 아이의 울음 소리구나.

출처 미상 빙빙전 3:62ㄱ

용례 11

66 문헌 용례

형의 돈잠을 씨도소이다.

역 현대어 풀이

형의 단잠을 깨웠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단잠 관련 낱말

달다

단잠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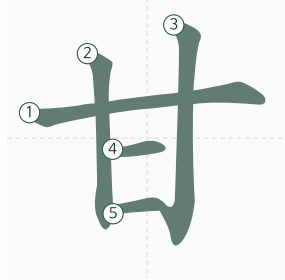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단잠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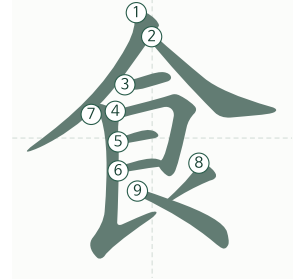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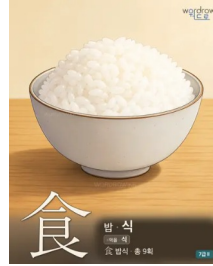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甘 뜻·음 달 감
총 5획 · 부수 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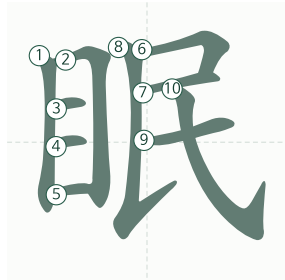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甘/

食 뜻·음 밥·먹을 식
총 9획 · 부수 食



hanja.wordrow.kr/한자/食/

眠 뜻·음 잘 면
총 10획 · 부수 目



hanja.wordrow.kr/한자/眠/